

# “제주-일본간 교류 다시 활발하게 이어지길”

### 제주포럼 한일의원연맹 특별세션… 관계 개선 논의 오영훈 지사 “상호협력 바탕 상생관계로 나아가야”

한일 양국의 의원과 전문가들이 제 17회 제주포럼에서 그동안 담보상 태를 보였던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해 논의하며 앞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지 주목된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5일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주제의 한일의원연맹 특별세션에서 연대와 상생을 통해 양국 간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성숙하게 진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김대중-오부처 선언 이후 진전이 없는 한일관계에 제주도민을 포함한 양국 국민 모두가 안타까워하고 있다”면서 “현재 제주와 도쿄, 오사카 간 직항노선 폐쇄로 교류가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한일관계가 개선돼 제주와 일본

간 교류가 다시 활발하게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과거 제주와 오사카간의 상호협력력을 바탕으로 양 지역이 근대화를 이뤄낸 사실을 강조하며,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 양국의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회의원 부의장은 “한일 양국이 올바른 미래지향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양국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숙제”라며 “현재 처한 엄중한 상황을 성찰하고 인식을 공유하면서 원원하는 관계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케다 료타 일본 중의원 의원은 “제주포럼을 통해 한일 양국 간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길 바란다”며



제17회 제주포럼 둘째날인 15일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는 개막식을 비롯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주제의 한일의원연맹 특별세션 등 다양한 세션이 진행됐다. 강희만기자

“한일 관계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 더 나아가 번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세션은 정진석 부의장과 다케다 료타 의원의 개회사에 이어 오영훈 지사 환영사, 아이보시 코이치 주한 일본대사 및 강장일 전 주일대

사 기조연설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준규 외교협회장이 좌장을 맡고 윤호중·김한정 국회의원, 하마치 마사카즈·나카소네 이스타카·시오무라 아야카 일본의원

이 패널로 참석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 제주시 9월 재산세 1052억... 11.8% ↑

### 서귀포시는 686억으로 늘어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 영향

제주시는 2022년도 9월 정기분 재산세 22만5573건에 1052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지방세다. 지난 7월에는 주택(1기분),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대상으로 했고, 이달에는 토지와 주택(2기분)에 대해 부과됐다.

부과 대상별로 보면 토지 939억원(18만968건), 주택 2기분 113억원(4만4605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11.8%인 111억원이 증가했다. 이를 두고 제주시는 개별공시지가 9.98% 상승을 세액 증대의 주요인으로 풀이했다.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 제주시는 23일까지 납부한 조기납세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200명에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귀포시도 최근 9월 정기분 재산세 14만3365건에 686억7600만원을 부과했다. 토지는 전년 대비 13.40% 증가한 12만8840건 631억900만원이었다. 주택분은 1만4525건에 55억6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세액이 4.54% 늘었다.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서귀포 국민신문고 민원 매년 증가세 지난해 1만5809건 처리... 4년새 2.35배 늘어

국민신문고를 통한 서귀포시 관련 전자민원이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5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서귀포시 국민신문고 민원 처리건수는 2017년 6725건, 2018년 9060건, 2019년 9921건, 2020년 1만4539건, 2021년 1만5809건이다. 지난 4년새 처리건 수는 2.35배 늘었다.

시는 인구와 차량 등의 증가에 따라 민원건 수도 비례적으로 늘었다는 분석했다. 사례별 민원은 주로 불법 주·정차, 장애인 주차구역 위반, 공사·도로 보수,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위생 문제, 불법광고물 신고 등이다.

지난 8월말 기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은 1만23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86건에 견줘 소폭 증가했다.

불법 주·정차와 차량 번호판 가림·제동등 미점등 민원 등이 413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애인 주·정차구역 위반 민원 등 2237건, 도로·가로등 보수 및 과속방지턱 설치 등 389건, 전기차 충전구역 위반 등 327건, 식당 위생·소음·야외 무단 영업 신고 등 213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읍면동 민원은 주로 불법 광고물 철거 요청과 쓰레기 처리 및 환경 정비 민원 등이 주를 이뤘다. 대정읍이 32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남원읍 177건, 안덕면 172건, 성산읍 136건, 표선면 112건 등의 순이다.

백금탁기자

# 온라인 해외시장 매칭 제주여행 콘텐츠 공모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는 이달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한 달간 온라인을 통해 '2022년 제주 해외시장 매칭 여행 콘텐츠 공모전'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접수는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www.ijto.or.kr)에서 신청서와 제

출 서류를 구비한 후 이메일(globalmkt@ijto.or.kr)을 발송하면 된다.

접수된 콘텐츠는 향후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가 콘텐츠 내용, 기획성, 안전성, 서비스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적으로 20개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콘텐츠는 200만원의 인센티브가 지급되며, 해외시장을 대상으로 홍보가 추진된다.

백소정기자

# 도내 법인 지방소득세 총 6800억 납부

### 네오플·엔엑스씨·넥스코리아·카카오 등 상위권

카카오, 비엠아이, 엔엑스씨 등 제주 이전 기업들이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10년부터 2022년 7월말까지 도내 법인 및 도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 제주에 납부한 법인지방소득세가 총 686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5일 밝혔다.

납부세액은 2010년 186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해 2019년 992억원을 정점으로 감소하다가 올해는 698억원으로 다시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186억원, 2015년 422억원, 2019년 992억원, 2020년 783억원, 2021년 560억원, 2022년 7월 기준 698억원이다.

연간 3억원 이상 고액 납부법인(2010년~2022년)은 128개로 4390억원을 냈으며, 상위 10위 이내 법인이 이 중 3000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위 10개 법인은 네오플, 엔엑스씨, 넥스코리아, 카카오, 한국은행,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지에스건설, 제주도개발공사, 호텔신라, 호텔롯데이다.

제주에 본점을 둔 법인 지방소득세 납부 상위 100위 이내 제주기업은 제주은행(14위), KCTV제주방송(29위), 제주막걸리(71위), 오설록농장(82위) 등이다

고액 납부법인 순위(2010년~2022년)를 보면 오설록농장이 연평균 증가율 14%로 가장 높았다.

특히 제주 이전기업들은 법인지방소득세 총세입이 2010년 186억원에서 2019년 992억 원으로 10년 사이 433%가 급증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제주 이전법인은 카카오, 비엠아이, 엔엑스씨, 제주반도체, 네오플, 넥스코리아 등이다.

고대리기자



별방진 찾은 관광객들 15일 제주시 구좌읍 별방진을 찾은 관광객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며 추억을 새기고 있다. 이상국기자

# 태풍 등 자연재난 대응 풍수해보험 가입 독려

최근 국지성 집중호우와 태풍 등 연이어 발생하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피해에 신속 대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들의 풍수해보험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권장하고 6개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일부(85-

92%)를 행정안전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조하는 풍수해 대비 보험 제도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풍수해보험 가입 시 자부담비율을 기존보다 5~15%p 내려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줄였고, 보험료를 최대 92%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풍수해보험은 면적에 관계없이 최소 복구비만 정액 지급하는 재난 지원금과 달리 피해 면적에 따라 보험금도 비례해 지급된다.

고대리기자

## 진정한 제주축의 보약

# 페르카칼슘+코코리비료

120년의 역사 [독일 수입]

미늘·더덕  
썩음병, 균핵병 예방

오랜 기간 지속되는  
N20 균형잡힌 질소  
공급의 효과 60일

연작장애  
토양 속독 살균

방이벌레 등 유해  
곤충에 의한 피해 경감

강력한 라임효과  
높은 저항성

**100% 수용성 비료**  
15-3-5+특수물질8종

**Powerful**

용량 : 20kg

**펄빅산**  
토양의 pH 농도를 개선시켜 주며, 양분의 저장과 역할과 효과를 연장시켜줌

**PAA**  
영양분 흡수를 개선하며, 비료 흡수를 상승 및 방해, 건조 등의 저항력을 올려줌

**바실러스**  
유기물 분해를 촉진하고, 토양질병의 발생을 감소시킴. 비료 흡수율을 올려줌

**호소당밀**  
과실의 색상을 증진시키고, 맛을 개선시켜줌. 식물의 필요에너지를 제공함

**PGA**  
얕은 막을 형성해 뿌리를 보호하며, 양수분을 뿌리 깊이에 전달하는 역할을 함

**와산바실러스**  
미생물 살균제로 토양의 세균성 질병의 확산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

**발근제**  
천연성분으로 주근의 성장을 향상시켜며 심근을 유도하고 미세근 발달을 촉진함

NAVER D.M **코코리** 검색

**농기작업인부 지원(과수원 발작업)**

**사용할수록 토양이 좋아지는 스마트비료**

**농업회사법인 코스텍비료(주)** 제주시 정실동길75(애초로) 오라CC사거리 동쪽  
Tel : 745-8900, H.P : 010-9258-7508

# 만감류 매달기는 다인굴고리!

쉬운 높이 조절

쉽게 높이 조절되는 굴고리

굴고리 재사용해 매달은 모습

매달기작업 일손을 줄이고 싶으신 분!  
더울 때 작업을 줄이고 싶으신 분!  
**한번 매달면 몇 년이 속편한,  
다인'굴고리'가 있습니다!**

**굴고리의 장점**

- 실제 매달기 작업의 시간이 확 줄어듬 → 2년 안에 인건비 절감액으로 자체구입비 회수가 가능
- 굴고리 작업세트로 한 번만 던져 설치하면, 3년 이상 철거 없이 매달기 고리로 계속 활용 가능.
- 굴고리 작업세트는 언제든 미리 설치 가능. 즉, 더워지기 전, 덜 바쁠 때, 인력 쉽게 구할 수 있을 때 언제든지 미리 작업해 둘 수 있음.
- 고정판을 이용하여 높이조절이 쉬움.
- 수확 후 회수도 간편.

**굴고리 작업세트 구성**

굴고리 + 고정판 + 인파밴드 = 굴고리 작업세트

굴고리+고정판+인파밴드를 셋트로 구입해 사용합니다. 나무 1개에 4-6세트 사용됩니다.  
굴고리에 밴드끈의 한쪽을 묶고, 반대쪽에 고정판을 묶은 후 설치해 매달기 고리로 활용합니다.

**DA IN 다인산업(주)**  
054-652-3725  
www.dainfine.com

**제주 각 지역 농협에 절찬 판매중**